

고소설의 '문창성' 수용과 유(儒)·도(道) 경계의 사상 융합형 군자

— 〈완월회맹연〉의 '정잠'을 중심으로 —

김수연*

<차례>

1. 시작하며
2. 정명도의 후손과 문창성의 후신, 정잠
3. 문창성의 서사적 이미지와 유·도 융합형 군자
4. 유교적 가치관과 도교적 상상력의 서사적 결합
5. 마치며

〈국문초록〉

이 글은 국문 장편소설의 캐릭터를 구성하는 사상적·서사적 기원을 고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문소설 계열의 〈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문창성' 화소의 수용 양상과 서사적 기원을 살핌으로써 중심 인물이 유교와 도교의 사상 융합형 군자로 형상화되는 과정을 논의했다. 〈완월회맹연〉은 송나라 성리학의 비조 정명도의 후손을 주인공 가문으로 삼고 있다. 핵심 인물인 남성 주인공은 기본적으로 유교적 군자의 모습을 보인다. 그 중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서사를 견인하는 정잠의 경우 등장 부분에서 '신선'이라는 도교적 이미지를 부각할 뿐 아니라 후반부에서는 천상의 성관(星官) 문창성이었던 전생을 상당한 비중으로 소개한다. 군자형 인물의 내력을 역사적으로 정명도의 후손이고 우주론적으로 문창성의 후신이라고 설정한 것이다.

문창성은 천상의 천체 이미지로부터 문창제군 혹은 문창성군이라는 신격으로 변모하는 서사를 지닌다. 문창성은 도교의 대표적 신격으로, 명·청은 물론 조선

*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사회 상층에서 널리 받아들여졌던 대상이다. 수용의 배경으로 숭문(崇文)의 이미지 외에 조선 사대부가 중시했던 ‘효’ 기반의 ‘충효’ 사상을 확인했다. 문창성이 인격화·신격화 되는 과정에서 재동제군의 서사와 결합하며 ‘충효’를 강조하게 되는데, 문창제군의 서사를 담은 도교 경전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창성 화소의 수용은 고소설의 유교적 서사세계가 도교적 서사세계를 비중 있게 포섭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유교적 가치관과 도교적 상상력을 서사적으로 결합해 만든 사상 융합형 군자가 형상화되었다. 이러한 캐릭터의 창출은 도덕적 우월성 위에 초월적 위상을 소망했던 사족들의 욕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완월회맹연>, 문창성, 군자형 인물, 도교적 상상력, 유교적 가치관, 융합형 군자

1. 시작하며

국문 장편소설의 다수를 차지하는 가문소설은 유교적 질서를 전제로 한 ‘가문의식’을 강조한다. 작품 속 핵심 인물의 삶은 충·효·열의 가치를 구현하는 과정이고, 그들이 맺는 인간관계는 삼강오륜을 실천하는 현장으로 그려진다. 이것은 모두 가부장 중심의 유교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특징은 남성 인물의 형상화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른바 ‘군자형 인물’로 묶이는 남성 주인공들은¹⁾ 유교 사상의 결정체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17세기 <창선감의록>의 화진과 <소현성록>의 소현성에서 본격화되는 가문소설 계열 장편소설의 군자형 인물은 요순(堯舜)에 비견되는 유교의 성인(聖人)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신화시대의 요순을 모델로 하는 군자형 인물은 엄밀히 말해 고대 원시 유학이 아닌 송대 이후의 성리학적 질서를 구현하는 인물들이다.²⁾ 앞에

1) 조해란, 「고전소설에 나타난 군자형 인물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연구』 3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150쪽.

서 언급한 화진과 소현성은 말할 것도 없고, 18세기 <유효공선행록>의 유연이 보여주는 '효제'와 '효우'의 절대화는 성리학적 질서가 공고해지면서 강조된 덕목이다.³⁾ 이것은 작품이 창작된 조선후기에 사회적으로 성리학적 도덕관을 강조했던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⁴⁾ 특히 <완월회맹연>은 '성리학'을 인물 형상화의 기본 전제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중심 가문인 정씨 일가를 성리학의 비조인 정명도(程明道) 즉 정호(程顥, 1032-1085)의 후손 집안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⁵⁾ 이로 보면 정씨 가문의 중심 남성 인물은 생래적으로 성리학적 질서를 내재한 군자형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 2) 유학사는 고대 공자와 맹자 시대의 유학을 원시 유학, 송대 주돈이-장재-정호·정이-주희로 이어지는 유학을 신유학 혹은 성리학이라고 하여 구분한다. 김세한, 『송대 신유학과 퇴계의 철학사상』, 『퇴계학』 2, 안동대학교, 1990, 7~30쪽; 성교진, 『조선성리학사 서설』(1), 『현대사상연구』 2,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현대사상연구소, 1991, 56~58쪽.
 - 3) 사림의 진출 후 <소학>이 평생의 수신서로 부각되면서 특히 '효'를 중심으로 하는 효제와 효우가 강조되었다. 김기현, 『士林派 道學者들의 실천정신과 그 굴절』, 『국학연구』 9, 한국국학진흥원, 2006, 33~42쪽. 특히 조선후기는 주자에 대한 숭배가 강조되면서 주자가 엮은 <소학>을 주자 성리학의 핵심으로 여기고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효종실록』, 8년 정유, 고전번역원, “준길이 아뢰기를,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부모가 생존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생일날에 배나 비통하게 느껴야 마땅하다. 여찌 차마 술을 마시며 음악을 베풀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주자가 그 말을 『소학』에 실어 놓아 후에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대부의 집안에서는 혹 이날 연회를 베풀지 않습니다.”; 9년 무술, “이경석이 아뢰기를, ‘팔로 중에 서로(西路)가 가장 우매하니 반드시 먼저 『소학』을 가르쳐 부모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의리를 알게 하여야만 그 풍속이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김훈식, 『16세기 <二倫行實圖> 보급의 사회사적 고찰』, 『역사학보』 107, 역사학회, 1985; 김수연, 『‘형제급단’의 서사적 전변과 우애의 신화화-한국사회의 ‘형제서사’ 진단과 치유적 전개 방향』, 『문학치료연구』 54, 한국문학치료학회, 2020.
 - 5) <완월회맹연> 장서각본, 권1, 1쪽, “대명 영종 년간에 황태부 슈가는 단국공 정한의 즈는 계원이오 호는 문창이니 송현 명도선성 후예라.”; 김수연, 『<완월회맹연>의 종교 사상 : 도덕적 가문 절대주의로 수렴되는 유불도』, 『달밤의 약속, 완월회맹연 읽기』, 책과함께, 2019, 247~248쪽.

조선후기 성리학은 형식적 규범주의를 지향했다. 이것은 왕실과 관료 사회를 크게 뒤흔들고 서인과 남인의 정치적 공방의 장이 되었던 두 차례의 예송논쟁(1659; 1674)이 『주자가례』를 둘러싼 문구 다툼이었다는 것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또한 당시 ‘사문(斯文)’이라 불린 성리학은 주자의 관점을 벗어난 경전 해석을 불허하고, 윤희(尹鑣, 1617-1680)와 박세당(朴世堂, 1629-1703) 같은 당대 명사를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 하여 죽음으로까지 몰아갈 정도로 경직된 사상적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배타적 형식주의와 사상적 경직성은 같은 시기에 창작된 고소설 속 군자형 인물들에서도 확인된다. 그들은 자신의 이성과 감정까지 철저히 성리학적 질서 안에서 조절했던 것이다.⁶⁾

그러나 군자형 인물의 존재론적 정체성은 그다지 ‘성리학적’이지 않아 보인다. 많은 경우 군자형 인물이 도교적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⁷⁾ 고소설은 태몽이나 전신(前身)을 통해 인물의 존재적 본질을 드러내는데, <소현성록> 소현성의 태몽은 ‘신선에게 받은 백옥이 용으로 변해 모친의 품에 드는 것’이고, <완월회맹연> 정인성은 전신이 ‘천상의 태을(太乙)’이었다. 신선, 백옥, 용, 태을은 도교의 주요 이미지와 캐릭터이다. 특히 태을은 도교의 신격(神格) 중 지존(至尊)에 해당한다.⁸⁾ 군자형 인물이 신선이나 태을 같은 도교의 신인과 신격에 존재적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존재론적 기반을 도교에, 실천적 기반을 유교에 둔 인물을 유교와 도교의 ‘사상 융합형 군자’라고 칭하고, 융합형 군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문창성’의 서사적 수용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시각의

6) 조혜란(2016), 앞의 논문, 157쪽.

7) <소현성록>의 소현성이나 <유씨삼대록>의 유세형, <명주기봉>의 현천린 등이 대표적이다.

8) 김수연, 「고소설 천문화소 ‘太乙’의 서사적 수용 양상과 의미」, 『열상고전연구』 44, 열상고전연구회, 2015, 177~181쪽.

연구는 기존 연구의 관점과는 차별화되는 작업이다. 군자형 인물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크게 두 가지 입장에서 전개되었는데, 하나는 인물이 어떠한 유교 이념을 어떻게 내면화하고 실천하는가에 대한 분석이고,⁹⁾ 다른 하나는 유교적이라는 규정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군자형 인물의 '일탈'에 주목하는 연구이다.¹⁰⁾ 전자는 물론 후자의 '일탈'도 '유교적 군자'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경향 모두 군자형 인물이 유교적 사상에 기초하여 구성되고 있음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교와 도교가 대등하게 군자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과 유교가 중심이고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을 '일탈'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관점이다. 이 글은 문구에 대한 해석의 차이도 인정하지 않았던 성리학이 어떠한 이유로 대표적 유교 캐릭터인 '군자형 인물'의 구성에 도교를 참여시켰는지를 이해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두 사상 사이의 서사적 협업이 가능했던 배경을 설명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국문 장편소설의 절정기에 나온 작품 가운데 가문의식과 유교적 세계관이 뚜렷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완월회맹연>(장서각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교적 군자 캐릭터를 구성하는 과정에 어떠한 도교적 화소와 서사가 채택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이유로 유교적 세계관에 적극 수용될 수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도의 경계에 놓이는 사상 융합형 군자의 서사적 특징을 통해 유교적 가치관과 도교적 상상력의 소설적 결합이 지닌 의미도 논의할 것이다.

9) 박일용, 「<유효공선행록>의 형상화 방식과 작가의식 재론」, 『관악어문연구』 20, 서울대 국문과, 1995, 151~176쪽; 정선희, 「영웅호걸형 가장의 시원-〈소현성록〉의 소운성」, 『고소설연구』 32, 2011, 153~185쪽; 조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효제' 수행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유연과 정소저 부부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39, 2015, 156~164쪽.

10) 최윤희, 「<유효공선행록>이 보이는 유연 형상화의 두 양상」, 『한국문학논총』 41, 2005, 189~209쪽; 이지영, 「규범적 인간의 은밀한 욕망」, 『고소설연구』 32, 2011, 123~152쪽; 조혜란, 「소현성과 유교적 삶의 진정성」, 『고소설연구』 36, 2013, 167~200쪽.

2. 정명도의 후손과 문창성의 후신, 정잠

18세기 소설 <완월회맹연>의 대표적 군자형 인물은 정한과 그의 두 아들 정잠·정삼 그리고 손자인 정인성·정인광·정인웅이다. 명나라 영종(英宗, 1436-1449; 1457-1464)¹¹⁾ 연간을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은 첫 머리에서 황태부이자 수각로인 정한을 소개하며 그가 송나라의 도학자인 명도선생의 후예임을 밝힌다. 명도 선생은 북송 때 성리학의 기틀을 세운 정명도(程明道) 즉 정호(程顥, 1032-1085)이고,¹²⁾ 이 작품은 그의 후손 집안 이야기인 것이다.¹³⁾

명나라 영종 연간 황태부 수각로 진국공 정한은 자가 계원이고 호는 문창으로, 송나라 현인 명도선생의 후예이다. 성인 가문의 유풍이 먼 후대의 자손에 이르러 일반 사람보다 뛰어나고 학문과 독서를 좋아하며, 인자하고 어질며 효성과 우애가 있어서 도덕과 성격과 행동이 흐린 세대에 물들지 않았고 명성을 구하지 않았다.¹⁴⁾

인용문에서 보듯, 정한은 명도 선생 집안의 유풍(遺風)을 잃지 않은 인물로서 자질이 뛰어난 것은 물론 학문과 독서를 좋아했다. 성품도 인자하며 무엇보다 효성과 우애가 깊고 성격과 행동이 모두 도덕적이다. 정한이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 중 ‘효성과 우애, 그리고 도덕’은 그가 물려받은 ‘명

11) 영종은 명나라 제6대, 제8대 황제이다.

12) 정호의 생존기간은 북송 인종(仁宗, 1023-1063)·영종(英宗, 1064-1067)·신종(神宗, 1068-1085)조이다.

13) 김수연, 『<완월회맹연>의 종교 사상 : 도덕적 가문 절대주의로 수렴되는 유불도』, 『달밤의 약속, 완월회맹연 읽기』, 책과함께, 2019, 247~248쪽.

14) <완월회맹연> 권1, 1쪽, “대명 영종 년간에 황태부 슈각노 단국공 정한의 즈는 계원이오 호는 문창이니 송현 명도선생 후예라. 성문 여풍이 원더 후손의 니러히 출어범 뉴후여 호학독서후여 인현효우후여 도덕성형이 탁세의 므드지 아니후디 문달을 구치 야나”

도 선생 집안의 유풍'을 대표한다. 성리학적 도덕론이 중시하는 것이 '효성'을 중심으로 한 우애와 공경인 것이다. 이것은 그의 아들과 손자들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실천 덕목이다.

장자 정잠의 자는 운백이고 호는 청계이다. 용모가 수려하여 옥을 씻은 듯하고 풍채도 깨끗하여 가을날 시냇물 같으니 완전히 '학을 벗 삼는 신선'이었다. 문장이 유여하여 조자건의 <칠보시>와 이백의 <청평사>를 낮게 보니, 이른바 “筆落驚風雨，詩成泣鬼神(붓을 대면 비바람도 놀라고, 시를 지으면 귀신도 흐느낀다)” 만했다. 이미 성조 때 벼슬에 올라 조정의 잘못을 바로잡고, 황제 앞에서 바른 말하는 곧은 신하가 되었는데, 지금 임금이 즉위함에, 벼슬을 높여 문연 각 태학사에 임명하니 정잠이 사양하나 허락을 얻지 못해 소년의 빼어난 품모로 엄연한 재상이 되어 예우를 받는 청고한 작위를 받은 지 세월이 오래되도록 근신하고 겸손하여 행여 자신을 중히 여기는 교만함이 없고 겸약을 숭상하고 매사 갈고뒸야 조정에 들어 임금을 섬기는 데 만사를 엄숙히 하고 충효로 근본을 삼고 청렴과 검소함으로 마음을 삼으니 임금의 사랑이 태부 정한의 다음이고, 온 조정이 존경하여 명망과 재덕이 일세에 뜨르르했다.¹⁵⁾

정한에게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는데, 첫째는 정잠, 둘째는 정삼이고, 딸은 정태요이다. 정잠과 정삼은 부친 정한과 마찬가지로 당대의 뛰어난 군자였다. 특히 정잠은 문장이 조자건과 이백을 능가하고, 조정에서는

15) <완월회맹연> 권1, 4~5쪽, “당조 정잠의 자는 운백이요 호는 청계라. 용모 수려하여 옥을 씻어서며 풍채 쾌연하여 추탄의 계슈 갖더니 표표히 학우선각이라. 문장이 유여하여 조건의 칠보시와 니백의 청평사를 묘시하니 니룬 바 필낙의 성풍운이요 시성의 읍귀인이라. 임의 성도의 등양하여 보파습유하여 면전정정의 덕신이 되었더니 금둥이 즉위하시니 승품하샤 문연각 태학사를 하이시니 청계 사이부득하고 소년 영풍의 엄연한 지상이 되어 네우의 청고한 작위를 받즈완 디 세월이 오리도록 근신 겸퇴함히 힘혀 즈동 교오함히 업고 승검절츠하여 님도사군의 만시 숙연하며 통효로 위분하고 청검으로 위심하니 상봉이 태부의 버금이오 만되 괴경하여 물망지덕이 일세를 드레는디라.”

황제 앞에서도 직언하는 신하이며, 어린 나이에 벼슬이 재상에 오를 만큼 탁월하고, 충효를 근본으로 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것은 명도 선생의 후예에 걸맞은 모습으로, 유교적 가치를 구현하는 군자형 인물에게 매우 어울리는 수사(修辭)라고 하겠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정잠을 소개하는 첫머리에서 그를 “학우선객(鶴友仙客)”에 비유한 점이다. <완월회맹연>의 작가는 그의 첫인상을 “학을 벗 삼는 신선”으로 규정하여, 인물의 비범한 ‘등장’을 부각했다. 소설이나 희곡에서 인물의 등장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등장 장면을 통해 인물의 지배적 인상과 자질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작가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물의 소개와 등장에 공을 들인다.¹⁶⁾ 그렇다면 정잠 소개의 첫부분에 등장한 “학우선객”은 우연한 비유라고 보기 어렵다. 그것은 뒤이어 나오는 군자적 자질에 대한 묘사를 압도하는, 정잠의 핵심 이미지를 만드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고, 그의 인물 형상화에 도교적 이미지가 상당한 비중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도는 동생 정삼이 등장하는 부분과 비교해 볼 때 더욱 두드러진다.

차자 정삼의 자는 여백이고 호는 운계니 ‘경전에 밝은 선비가 큰 유자에게서 나온 것’이다. 문청공과 서부인이 니구산에 빌지 않고 옥골의 귀한 아들을 낳으니,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익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열을 들으면 백을 아는 총명함이 있을 뿐 아니라, 도덕이 빛나고 행실이 엄숙하여 말과 행실이 성인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일이 없었다. 평소에 기쁨과 노함을 드러내지 않았고, 말과 웃음을 경솔하게 내지 않으며, 공검하고 인자하고 굳고 성숙하니, 벼슬하는 이들 가운데 ‘독보적인 군자’였다. 그 외모와 풍채가 흐린 세상에 물들지 않았고 가슴속에는 흰 해가 비추고 행실은 맑은 물과 깨끗한 옥 같으며, 여동빈과 이적

16) <서유기>의 경우 원천서사인 <취경기>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 부분인 ‘찬궁 대소동’을 7회 분량에 걸쳐 강조했는데, 이것은 주인공 손오공의 화려하고 비범한 등장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린경, 김수연 역, 『서유기-강호에서 동심으로』, 학교방, 2019, 60쪽.

선을 따라 남화자를 벗어나는 듯하고, 용 눈썹과 봉황 눈에 천지의 정수를 모아 밝고 높은 격조가 오히려 예부 정잠보다 위였다. 엄엄한 도행이 안회와 맹자를 짝하고 출천대효는 증자와 왕상을 본받으며 우에 돈독함이 지극했다. 일찍이 부귀공명을 뜬 구름같이 여겨 출세를 구하지 않겠다고 부친 앞에 고하여 과거 공부를 아주 끊고 긴긴 낮과 밤에 성인과 현인의 경전을 읽어 성리를 밝히고 도행을 수련하되 스스로 고결함을 자랑하지 않고, 기산과 영수의 허유가 지닌 높은 뜻과, 염계 주돈이의 달을 가릴 듯한 기상과 비슷하니, 부모가 몇몇 자녀 중 차자의 사람됨이 이같이 기이함을 애중하여, 천륜을 넘는 특별함이 있었다.¹⁷⁾

정삼에 대한 소개는 “명경디싱(明經之生)이 싱어대위(生於大儒)라”라는 말로 시작한다. ‘큰 유자에게서 나온 경전에 밝은 선비’라는 뜻이다. 그는 “이구산에 빌지 않고” 태어났고 “배우고 익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열을 들으면 백을 아는 총명함[학이시습하여 일이다습하고 십이다빅히는 총명]을 지녔다. 이 부분은 니구산에 빌고 태어났다는 공자의 이야기와 “학이시습(學而時習)”과 “문일지십(聞一知十)”이라는 『논어』 속 구절을 환기시킨다. 또한 ‘도덕빈빈(道德彬彬), 행실숙숙(行實肅肅), 희로불현(喜怒不現), 공검인자(恭儉仁慈), 강명열숙(剛明熱淑)’이라는 묘

17) <완월회맹연> 권1, 5~7쪽, “츠즈 경슴의 즈는 녀빅이오 호는 운계니 명경디싱이 싱어대위라. 문청공과 셔부인이 니구의 빌미 업시 일기 옥골 성즈를 싱하니 유시로브더 학이시습하여 일이다습하고 십이다빅히는 총명이 이실 쑤 아니라 도덕이 빈빈하고 hing실이 숙숙하여 언행동정이 성교 밧 일이 업는다라. 평싱 희로를 불현하고 언쇼를 경출치 아니하며 공검인즈하고 강명열숙하미 셔디의 독보흔 군지라. 그 외모 풍신이 탁속의 므드니 업셔 흥동의 빅일이 빗최고 hing실이 청슈 옥결 곻터여 동빈과 격션을 쓰라 남화를 벗히는 듯 농미 봉안의 텃디 정화를 모도와 교교양양흔 격죄 오히려 네부 우허라. 엄엄한 도행이 안명을 상우하고 출천대효는 증즈 왕상을 효측하며 회우돈목하미 디극흔지라. 일즉 공명부귀를 부운갓치 녀여 불구문달하믈 부전의 고희여 과업을 아조 싣코 당일당야의 성경현전을 디하여 성니를 불히고 도행을 슈련하디 스스로 고결하믈 즈랑치 아냐 괴스 영슈의 높흔 뜻과 넘계의 폐월 갓튼 괴상이 흡스하니 부피 슈소 즈너로써 츈즈의 위인이 여츈 괴이하믈 이등하여 텃눈 밧 즈별하미 있는다라.”

사와 ‘언행동정(言行動靜)이 성교(聖敎)를 벗어나지 않고, 언소(言笑)를 경출(輕出)치 않는다’는 서술은 그가 명실상부한 유교사상 기반의 “독보적 군자”임을 나타낸다.

또한 정삼은 엄엄한 도행(道行)이 안회와 맹자에 짝이 될 정도이고, 출천대효(出天大孝)는 증자와 왕상에 비기며, 우애도 돈독하다. 명도 선생의 후예답게 언제나 성인과 현인의 경전을 대하며 성리(性理)를 밝히고 도행(道行)을 수련하면서도 자신의 고결함을 자랑하지 않는다. 천하를 주겠다고는 요임금을 피해 기산에 숨어 살고 영수에 귀 씻었던 허유의 높은 뜻을 계승했고 복송 시대 성리학의 틀을 세운 염계 주돈이의 기상을 닮았다. 그렇고 보니 부모도 정삼을 보통의 자녀와는 다른 특별함으로 대했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모두 첫구절을 뒷받침하는 상술로서, 사상적 측면에서 일관된다. 물론 중간에 신선이 된 여동빈이나 시선(詩仙)으로 불린 이적선과 어울리며 남화자라 불린 장주와 벗이 되었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정삼에 대한 지배적 인상을 만들지 못한다. 정삼은 성리를 밝히고 도행을 수련하는 성리학적 군자인 것이다.

작품의 도입부에 나오는 정삼과 정삼의 대비는 <완월회맹연>이 그리는 군자형 인물의 두 가지 방향을 보여준다. “학우선객(鶴友仙客)”과 “명경디성(明經之生)”이 그것이다. 전자는 도교적 군자형 인물이고 후자는 유교적 군자형 인물이다. 그렇다고 <완월회맹연>의 작가가 정삼을 도교적 영웅으로 그리고자 한 것은 아니다. 정삼의 삶이 도교소설 <영이록>의 주인공 손기와는 다르기 때문이다.¹⁸⁾ 정삼은 분명하게 유교 사상을 체현하는 군자형 인물이다. 엄밀히 말해 정삼은 도교와 유교의 경계에서 만들어진, 사상 융합형 군자인 것이다.

정삼이라는 군자형 인물을 구성하는 데 사용된 도교적 이미지는 “학우

18) 손기는 선도(仙道)를 이룩하여 진인(真人)이 된 천사(天師)로 나온다.

선직”만이 아니다. 작품의 후반부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강화된 도교 서사가 나온다.

부인(소교완)이 고요히 듣기를 다함에 남은 인연이 분명한 듯 다소곳이 머리를 숙여 쉽게 대답하지 못하다가 문득 물었다. “직녀성은 천제의 자손이고, 하백의 딸이니 예사 평범한 선남의 무리가 아닌데, 어찌 인간 세상에 적강하였습니까?” 태부인이 말했다. “문창성이 옥제 앞에서 직녀를 보고 눈길을 주며 사사로운 정을 지냈는데, 직녀가 그 뜻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 사사로운 말에 약속을 하니(옥제가) 문창성을 하계에 적강하게 하시고 십 년간 슬픔과 고통으로 그 죄를 갚도록 하시며, 직녀는 양씨 집 딸이 되어 문창과 인연을 있게 한 것이다.”¹⁹⁾

인간 세상의 청계공 정작은 본래 문창성으로 옥제 앞에서 글을 지을 때 직녀 천손이 그의 풍채를 흠선하여 눈으로 유의하여 보았는데 문창성이 이를 엄절하게 물리치지 아니하고 희롱함에 옥제가 그 무례함에 화가 나 인간 세상에 내려 보냈다. 춘추 난세에 내려가 시절을 만나지 못하고 도를 폐하지 못함이 애석하다 여기시어 인간 부귀를 누리게 하시나 십년 고향을 겪어 직녀와 희롱한 죄를 씻게 한 것이다. 직녀는 비록 자신의 죄 때문에 적강하였으나 본래 천제의 자손으로 지극히 존귀하니 진토 중에 오래 두지 못할 것이어서 삼십 일을 기한으로 하여 다시 천궁에 돌아오게 한 것이다.²⁰⁾

19) <완월회맹연> 권164, 12~13쪽, “부인이 고요히 듣기를 다하니 여연이 명명한 듯 유유히 머리를 숙여 쉬히 디치 못하니 문득 못조오디, 직녀성은 텃테의 손이오 하백의 딸이니 예사 범연한 선남의 무리 아니라 엇지 인간의 적강하였더니잇고, 태부인왈, 문창성이 옥제 압히서 직녀를 보고 눈썹어 스경이 잇거늘 직녀 그 뜻을 바다 거절치 아니코 스스로운 못거지의 괴약다 하샤 문창을 하계의 적강하시디 십년 비고로써 그 죄를 속게 하시고 직녀는 양가의 딸이 되어 문창으로 인연을 닛게 하시니라.”

20) <완월회맹연> 권164, 34~35쪽, “인세 정청계는 본이 문창성으로 옥제 압히서 문즈를 일울 계 직녀 텃손이 그 풍치를 흠선하여 눈으로써 유의하여 보니 문창성이 엄절이 물리치지 아니코 희롱하디 옥제 그 무례함을 노하샤 인간의 적하하여 춘추 난세의 강하하여 시절을 만나지 못하고 도를 폐치 못하미 츠석다 하샤 인간 부귀를 누리게 하시나 십년 고향을 겪거 직녀의 희롱한 죄를 속게 하시고 직녀는 비록 그 죄로써

<완월회맹연>의 작가는 작품의 끝부분에, 국문 장편소설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정잠의 전생 내력을 공개한다. 정잠의 후처 소교완이 병들어 사경을 헤매던 중 꿈에서 죽은 모친을 만나 정잠과 자신, 그리고 정잠의 첫째 부인이었던 양씨의 전생 사연을 듣는 장면을 한 권 분량으로 그린 것이다. 그에 따르면 정잠은 원래 천상의 문창성이었다. 그는 옥황상제 앞에서 글을 짓다가 직녀인 양씨를 보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눈길을 주었다가 인간 세상에 내보내졌다. 직녀도 문창성을 거절하지 않고 유의하여 바라본 죄로 함께 내려왔다. 그러나 직녀는 천제의 자손이므로 30일 만에 천상으로 복귀하고, 정잠은 10년의 고난을 겪게 된다.²¹⁾ 양씨가 천상으로 돌아간 후, 문창성을 흠모해 따라서 적강한 용녀 소교완이 정잠의 후처가 된 것이다. 소교완의 꿈을 통해 작가는 독자에게 정잠이 명도 선생의 후손일 뿐 아니라 문창성의 후신임을 알려준다. 문창성 서사에 할애된 비중은 정잠의 천상 전신이 역사적 전신과 비견할 무게임을 나타낸다. 정잠은 역사적으로 송대 성리학의 비조인 정명도의 후손이고, 우주론적으로는 천상 문창성의 후신이며, 사상적으로는 유·도의 경계적·융합적 인물인 것이다.

3. 문창성의 서사적 이미지와 유·도 융합형 군자

단순한 비유를 제외하고, 인물 형상화와 관련하여 조선후기 장편소설이 ‘문창성’을 수용하는 양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우주 천체로서의 ‘별’ 그 자체로 사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문창성을 인격화하여 중심인

적강하여시나 본디 텃테지손으로 지극히 존귀하니 진토 중의 오리 두지 못홀 거시니 삼십일을 한하여 도로 텃궁의 도라오게 하시니라”

21) 30일과 10년은 천상의 시간이다. 양부인은 32세에 세상을 떠나고 정잠은 100여 세를 산다.

물의 전생 존재로 설정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천상의 별을 지상 인물의 '주성'으로 삼아 인물이 처한 상황을 알리거나 인물에게 닥칠 위기를 암시한다. 대표적인 예가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이다. 유세형이 성태사에게 궁에 머물고 있는 진양공주를 집으로 돌아오게 할 계교를 묻자, 태사는 “근래에 문창성이 자미성(紫薇星)을 상하여 빛이 대궐에 은근히 비추니 제가 괴이하게 여겼는데 이 반드시 공주의 주성(主星)이오. 제가 이미 천 리를 관장하고 있으니 마땅히 말을 윤색하여 형의 근심을 풀겠소.”²²⁾라고 말한다. 그는 진양공주의 주성인 문창성을 통해 그녀의 상황을 짐작하고 향후의 일을 계획하는 것이다. <유씨삼대록> 외에 많은 소설이 주성 모티프를 하나의 서술 관습(rhetoric)으로 사용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인물의 전생을 천상의 성관(星官)으로 설정한다. 이때 문창성은 우주의 천체가 아니라 옥황상제를 보필하는 천정(天庭)의 관리이다. 그는 문장 제도에 뛰어나지만 선녀와 수작하다가 인간세계로 적당하여 지상에서의 후생 삶을 이어가게 된다. <옥루몽>의 양창곡이 이에 해당한다.²³⁾ 양창곡의 천상 전신이 문창성군(文昌星君)인 것이다. 옥제는 백옥루 잔치에서 문창성군에게 술을 내리고 시를 짓게 하는데, 취흥이 오른 그는 잔치 끝에 제방옥녀 등과 희롱하다가 지상에 던져지게 된다.²⁴⁾

22) <유씨삼대록> 권3, “근래 문창성이 즈미원을 상응하여 빛지 금뿔의 은복혀여시니 쇼데 고이히 녀엇더니 이 반드시 공주의 주성이랴다 쇼데 임의 턴니톨 그음아라시니 맛당이 말을 윤식하여 형의 스러를 풀니라”

23) <옥루몽>(활자본), 제1회 “第一回 文昌玩月白玉樓 觀音散花南天門”

24) <옥루몽>, 제1회, “옥데 파리비에 유하주를 부어 특별이 문창성군을 주시며 백옥루 시를 지으라 하시니 문창이 취흥을 띄여 슈불정필하고 삼장 시를 알외니...문창과 옥녀ㅣ 마자 죄를 정홀시 문창은 데일위에 안고 옥녀는 데이위오 턴요성은 데삼위오 흥란성은 데스위오 계턴선녀는 데오위에 안져 차례로 죄를 정홀미 문창이 우음을 떼여 왈...보살이 미소하고 우유의 련화와 죄슈의 구실을 일시에 공중을 향하여 던지니 구실은 스방에 헛터져 간곳을 아지 못하고 다만 옥련화 혼 송이 빙운간에 날는 하계에 썩러져 일좌 명산이 되니 아지 못게라. 보살법력이 장찰 무슴 인연을 지여 었지 허려흠인고.”

두 가지 유형 중 문창성 화소가 도교적 맥락으로 수용된 것은 두 번째이다. ‘주성’은 사람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연결된다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교적 천문관(天文觀)에서도 허용하는 관념이다. 유교는 천상의 별과 지상의 인간을 연결하는 ‘성신조응’의 세계관을 도교와 공유한다. 성신조응의 천인감응론은 『여씨춘추』와 『회남자』에서 등장한 개념이지만 한나라 때의 유학자 동중서(董仲舒, BC179-BC104)가 높은 수준으로 재정리 및 체계화했기 때문이다.²⁵⁾ 천인감응은 도교뿐 아니라 유교에서도 중요한 인식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문창성’은 유교의 ‘군자’ 이미지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천체를 인격화하여 하늘 조정의 관리로 설정하는 것은 도교적 사유에 친근하다.²⁶⁾ 별자리에 관직을 부여하는 것은 『사기』 『천관서』에서도 확인되지만, 그것은 천체에 관직의 속성을 부여한 것이지 별자리의 인격화를 상상한 것은 아니다. 인격화된 성관(星官)은 도교의 선관(仙官) 이미지와 관직 구조를 빌린 것이다. 선관은 천정(天庭)의 관직에 있는 신선을 가리키는 도교의 용어이다. 천정을 관직의 계보로 구성하는 도교의 상상력은 『한무제내전(漢武帝內傳)』(전한 동방삭 작)이나 『진령위업도(眞靈位業圖)』(남조 양 도홍경 작) 같은 이른 시기의 도교 경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하늘 조정에서 옥황상제를 보필하는 관리는 인간계에서 볼 때 ‘천신(天神)’이다. 즉 ‘별자리’를 천정(天庭)의 관리로 설정하는 것은, 인격화를 통한 신격화의 작업인 것이다.

선관이자 천신인 문창성은 남송 때 ‘왕(王)’ 계열의 도교 신격으로 추봉되었다가, 14세기 원나라 때 ‘제군(帝君)’으로 가호(加號)된다.²⁷⁾ <옥루

25) 김일권, 『동양천문사상 하늘의 역사』, 예문서원, 2007, 65쪽.

26) 정재서, 『동아시아 상상력과 민족서사』, 이화여대출판부, 2014, 132~150쪽.

27) 卿希泰, 『中國道教史』 3권, 上海 知識出版社, 1994, ‘문창제군’ 조; 김일권, 『조선후기 도교 권선서의 삼제군 신격과 명청대 국가의례 전개 고찰 : 19세기 도교언해서

몽>에서 문창성을 '문창성군'으로 호명하는 것은 문창성이 '군' 반열에 오른 14세기 이후의 상황을 반영한다. 실제 <옥루몽>이 창작된 19세기에는 문창제군의 서사를 다룬 도교 권선서 『삼성훈경』을 국가에서 언해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문창제군 관련 서사가 이미 오래전부터 상당 수준으로 수용되었던 정황을 말해준다. 소설 속 문창제군의 수용에는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완월회맹연>보다 <옥루몽> 속 문창성이 더욱 도교적이라는 점은 후대로 갈수록 소설 캐릭터의 도교 사상 수용에 관대하고 적극적이었던 사회 분위기를 나타낸다.

그 어느 때보다 성리학을 강조했던 18세기의 <완월회맹연>이 군자형 인물 정잠의 전생을 인격화·신격화 된 문창성으로 설정한 것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군자형 인물 정잠의 전신을 문창성으로 설정한 것은 '천상의 별과 지상의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묶는 도교의 성신조응(星辰照應) 사상'을 반영한 것이고, 유교적 세계관을 구현하는 가문소설이 문창성을 수용한 것은 군자적 인물의 초월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사족 가문의 신이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²⁸⁾ 이것이 가능한 첫 번째 배경은 문창성에 결부된 '문(文)'에 대한 숭배가 유학자의 기본적인 자질과 일치한다는 점이다.²⁹⁾ 그러나 더 큰 요인은 문창성이 인격화·신격화 되는 과정에 수용된 서사적 이미지이다.

정잠이 '문장'에 뛰어난 인물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모든 군자형 인물이 공유하는 기초적 자질이기에 때문에 그것을 정잠의 비중과 캐릭터 특성을 설명하는 핵심 요소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정잠의 핵심 자질은 '문장의 뛰어난'보다는 '충효와 우애의 실천'에 있다. 정잠이라는 캐릭터는 조선후

『과화존신』과 『삼성훈경』을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51, 2019, 85쪽에서 재인용.

28) 김수연, 「<완월회맹연>의 종교 사상 : 도덕적 가문 절대주의로 수렴되는 유불도」, 『달밤의 약속』, 책과함께, 2019, 250~252쪽.

29) 김수연(2019), 위의 논문, 251쪽.

기 성리학이 강조하는 ‘충효와 우애’를 삶의 중심에 두고 구현하는 군자형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면에서 명도 선생의 적장자 후손다음에 모자람이 없는데, 그럼에도 작가가 굳이 그를 ‘문창성’의 후신으로 설정한 이유는 당시에 유행한 ‘문창성’의 서사적 이미지와 연결하여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기』 『천관서』에서 확인하듯 ‘문창성’은 북두칠성 위쪽에 바구니 모양으로 벌여 있고, 6개의 별로 이루어져 ‘문창육성(文昌六星)’ 혹은 ‘문창궁(文昌宮)’으로 불리는 별자리이다.³⁰⁾ 각각의 별은 ‘상장(上將), 차장(次將), 귀상(貴相), 사명(司命), 사중(司中), 사록(司祿)’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문창성에 ‘인간의 직위와 운명과 형벌과 복록을 주관하는 별’이라는 서사적 이미지를 부여한다. 그래서 문창육성은 천상의 육부(六府)를 구성하여 하늘의 법도를 관장하는 별자리로 알려졌는데,³¹⁾ 이것은 치인(治人)을 중시하는 관료형 군자에 가깝다.

공(정한)이 도리어 위로하고 이에 두 아들을 대하여 경계하며 말했다. “(첫째) 잠은 국가에 몸을 허락하였으니 내 굳이 사사로이 말할 바가 아니다. 모름지기 충을 먼저 하고 효를 뒤로 하여 나의 삼년상 맞는 날이 되어도 황제를 모시며, 소소하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일시 떨어져 있음을 서러워 마라. (둘째) 삼은 노모를 붙들어 자취를 심산에 부쳐 스스로 살아있음을 세상에 고하지 마라. 이렇게 칠팔 년 하면 자연 십 년 안에 다시 모자와 형제가 즐겁게 만나 흠어져 이별했던 정을 펼 것이니 물러남과 나눔, 떠남과 모임을 내가 이르지 아니하나 잠이 스스로 헤아림이 밝으리라. 유서 네 장을 봉인하여 상자 안에 넣어두고 봉투에 각각 볼 때를 적었으니 때가 이르거든 열어 보라.”³²⁾

30) 司馬遷, 『史記』 『天官書』, “在斗魁之上有六顆星, 形狀如筐, 名爲文昌宮: 六顆星的名稱一是上將, 二是次將, 三爲貴相, 四爲司命, 五是司中, 六是司祿.”; 김일권, 『우리 별자리 설화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183~184쪽.

31) 김일권(2017), 위의 책, 184쪽.

정한은 죽음을 앞두고 장자 정잠에게 벼슬에 나가 충(忠)으로 황제를 보필하라고 당부하고, 차자 정삼에게는 모친을 모시고 깊은 산에 들어가 은둔하라고 말한다. 이것은 정잠과 정삼이 각각 조선조 사대부의 진퇴하는 삶, 즉 청운(靑雲)과 백운(白雲)의 이상을 대표하는 캐릭터임을 나타낸다. 청운은 조정에 나가 세상 경영에 참여하는 관료형 군자로서 치인(治人)에 초점을 둔 삶을 비유하고, 백운은 조정에서 물러나 은둔하며 학문을 닦는 처사형 군자로서 수기(修己)에 초점을 둔 삶을 표상한다. 이 두 가지는 성리학적 지식인이 추구하던 삶의 방식인데, 정잠에게 부여된 관료형 군자의 역할은 문창성의 서사적 이미지와 연결된다.

정잠의 충(忠)은 부친의 유언을 받드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효(孝)이다. “충을 먼저하고 효를 뒤로 하여…황제를 모시며 소소하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일시 떨어져 있음을 서러워 마라”라는 정한의 유지를 실천하는 것은 충(忠)으로써 효(孝)를 다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충(忠)으로 효(孝)를 다하고 효(孝)로써 충(忠)을 다하는 것은 정잠이 표상하는 관료형 군자의 속성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사림과의 정신을 이어받은 조선후기 사대부는 관직에 있으면서도 ‘충효’에 대한 가치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다. 가문의 질서와 기강은 효(孝)를 통해 완성되고, 그러한 효(孝)의 확장이 충(忠)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완월회맹연>에서도 직접 인용한 “충신은 반드시 효자 집안에서 구한다(忠臣必求於孝子之門)”³²⁾라는 말처럼,

32) <완월회맹연> 권3, 22~23쪽, “공이 도로혀 위로하고 이의 이지를 더하여 경계 왕, ‘좁은 국가의 몸을 허흔 비니 니 굿터여 스스로이 니를 빅 아니니 모로미 텃으로써 몬져 호고 효로써 나중호여 나의 삼년을 맞는 날이라도 성듀를 붓드려 적은 스경으로 일시 상니의 설설치 말고 삼은 노모를 붓드려 주희를 심산의 붓쳐 스스로 스라시믈 세상의 고치 말기를 칠팔지만 호면 주연 십년디너의 다시 모즈 형데 즐거이 만나 분니호엇던 정을 퍼리니 물너가며 나옴과 써나며 모드를 내 니르디 아니호나 줌이 스스로 헤아리미 붉으리니 유서 스장을 인봉호여 협둬의 감초왔는디라 봉피의 각각 불 썬을 빼시니 썬 다닷거든 썬혀 보라.”

33) <완월회맹연> 권12, 15쪽, “통신은 필구어효즈디문이라”

충신과 효자는 동일한 인물의 두 가지 역할인 것이다. 즉 가문을 위하는 효(孝)가 공적인 영역에 적용될 때 ‘충’이 되는 것이지, ‘효’를 뒤로하는 ‘충’은 거의 불가하다. 조선후기 사족(士族)에게 효(孝)는 매우 공적이고 중대한 삶의 기반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충효’를 지지하는 서사는, 그것이 성리학이 이단이라 배척했던 불교의 것이라도 적극 권장되고 수용되었다.³⁴⁾ 도교에 대한 태도도 같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문창제군(文昌帝君)’ 서사이다. 앞서 말했듯 문창제군은 ‘문창성’을 수용해 구성한 도교의 신격이다. 문창제군은 재동제군(梓潼帝君)이라고도 불리며, 명나라와 청나라 그리고 같은 시기 조선에서 유행한 삼성(三聖) 신앙의 세 신격 중 하나이다. 삼성은 관성제군(關聖帝君)과 부우제군(孚佑帝君), 그리고 문창제군이다. 관성제군과 부우제군이 각각 관우와 여동빈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신격화한 것과 달리 문창제군은 천상의 별자리인 문창성을 신격화한 것이다. 문창성이 문창제군으로 인격화·신격화 되는 과정에서 ‘문창성’ 본래의 ‘숭문(崇文)’ 외에 ‘충효’의 서사가 포함되었다. 이 때문에 도교의 신격인 문창제군이 사대부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³⁵⁾ 심지어 국가에서도 문창제군의 서사를 간행하고 의례에 수용했다.³⁶⁾ 이와 같은 상황이었기에 정삼

34) 조선조 성리학의 대가로 꼽히는 송시열은 부친의 영향으로 매월당 김시습을 유자의 전범으로 여겼는데(『송사대전』 권151, <告皇考睡翁先生, 皇妣貞敬夫人郭氏墓文>), 이는 성리학이 이단으로 여긴 불교를 선택하는 극단적 자기부정을 통해서 세조를 부정했던 김시습의 행동이 유학자의 절조를 드러내는 데 옳다고 여긴 것이다.

35) 조선후기 사대부는 동요하던 유교 질서를 보완할 수 있는 사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주목한 것이 『경신록』과 같은 도교 권선서인데,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창제군 관련 기록들이다. 이태희, 『조선후기 선서의 수용과 유행의 요인-『증정경신록』과 『경신록언석』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69, 2016, 100~108쪽. 조선간본 『증정경신록』(1795)의 저본인 중국본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경신록』 판권이 1749년에 이루어졌고 1781년까지 32년 동안 11번 중각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張禕琛, 『清代善書의 刊刻與傳播』, 復旦大學 博士論文, 2010, 72~75쪽) 18세기 중후반에 한국에서도 인기리에 읽히다가 국가에서 판각했음을 알 수 있다.

과 같은 유·도 융합형 군자 캐릭터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유교적 가치관과 도교적 상상력의 서사적 결합

문창성의 인격화·신격화는 유교적 가치관과 도교적 상상력이 서사적으로 결합되는 과정을 거쳤다. 유교는 기본적으로 이성주의 사상이고, 도교는 초월주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실천주의적·규범적 개념과 제도를 중시하고, 도교는 혈연관계를 넘어서는 심미적·철학적 형상(形象)과 상상(想像)을 중시하기 때문이다.³⁷⁾ 상호 모순적으로 보이는 유교와 도교의 입세관(入世觀)과 초세관(超世觀)은 선진(先秦) 시대부터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³⁸⁾ 그들이 역사적으로 지속해온 사상적 협업은 후세 사대부의 “겸제천하(兼濟天下)와 독선기신(獨善其身)”,³⁹⁾ “몸은 강호에 있지만 마음은 조정에 있다[身在江湖而心存魏闕]”⁴⁰⁾라는 상호보완적이고 이중적인 처세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⁴¹⁾

유교와 도교의 사상적 결합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부각된 것이 ‘예교(禮敎) 서사’이다. 원래 상층의 도교는 출현할 때부터 유학을 보조자로 삼았고, 그중에서도 예교를 사상의 주요 원천으로 흡수하였다.⁴²⁾ 그리하여 초기 경전인 『태평경』부터 ‘충효인의(忠孝仁義)’를 긍정했으며, 갈홍도

36) 김일권, 『조선 후기 도교 권선서의 삼계군 신격과 명칭대 국가의례 전개 고찰 : 19세기 도교언해서 『과회존신』과 『삼성훈경』을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51, 2019, 83쪽.

37) 李澤厚, 윤수영 역, 『미의 역정』, 동문선, 1991, 164~173쪽.

38) 李澤厚, 윤수영 역(1991), 위의 책, 164쪽.

39) 『맹자』 「진심」 상, “窮則獨善其身, 達則兼濟天下.”

40) 유협, 『문심조룡』 「神思」, “古人云, 形在江海之上, 心存魏闕之下.”

41) 李澤厚, 윤수영 역(1991), 위의 책, 171쪽.

42) 牟鐘鑾, 이봉호 역, 『중국도교사-신선을 꿈꾼 사람들의 이야기』, 예문서원, 2015, 29쪽.

신선이 되는 조건으로 ‘충효인신(忠孝仁信)’을 강조하였다.⁴³⁾ 신선 이야기 속에 예교 서사를 수용한 것이다. 신선 설화는 ‘수련과 선업’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⁴⁴⁾ 수련이 개인의 질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라면 선업은 관계의 질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러한 경향은 성리학이 등장한 이후 보다 강화되어, 원나라에서는 유교와 도교를 결합한 도교 종파가 등장하기도 했다. 허손을 교조로 하고 괘박을 스승으로 받드는 정명도(淨明道)가 그것이다.⁴⁵⁾ ‘정명충효(淨明忠孝)’를 종지로 하는 정명도는 17세기 말에 전진도에 유입되어 명청 시기까지 유지되었는데, 이것은 도교이면서 동시에 유학을 종교화한 성공적 시도로 평가받는다.⁴⁶⁾

유교의 예교 서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권선서 계통의 도교 경전이다. 권선서 유형의 도교 경전은 도교가 대중화·세속화되는 과정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이때부터 비인격적 존재의 인격화·신격화도 본격화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송대의 『태상감응편』이다.⁴⁷⁾ 성호(星湖) 이익(李瀼, 1681~1763)이 독서 기록을 남긴⁴⁸⁾ 이 책은 도교적 상상력 안에서 유교적 예교 서사를 인과론의 관점으로 수용한 것이다. 즉 ‘삼태(三台), 북두(北斗), 조신(竈神)’ 등을 인격화·신격화하여 인간의 수복(壽福)을 관장하는 사명신(司命神)으로 형상화하는 데는 도교적 상상력이 작동하고, 사명신이 예교의 선악을 기준으로 인간의 수夭(壽夭)와 화복(禍福)을 결정하는 데에는 유교적 가치관이 개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효’ 사상을 상

43) 牟鍾鑾, 이봉호 역(2015), 위의 책, 29쪽; 윤찬원 역주, 『태평경 역주』 1, 세창출판사, 2012, 1~59쪽.

44) 김수연, 「소통과 치유를 꿈꾸는 상상력, <숙향전>」, 『한국고전연구』 2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436~441쪽.

45) 牟鍾鑾, 이봉호 역(2015), 위의 책, 240~241쪽.

46) 牟鍾鑾, 이봉호 역(2015), 위의 책, 242~245쪽.

47) 한상봉 편저, 『역주 태상감응편』, 다운샘, 2002, 10~184쪽.

48) 이익, 『성호사설』 6권 「만물문(萬物門)」.

당히 강조했다.⁴⁹⁾

권선서는 명칭 시기에 더욱 유행했는데, 한국에는 조선 초기 태종 시기부터 권선서가 유입되었다.⁵⁰⁾ 그 중 삼성(三聖) 신앙 관련 권선서가 특히 성행했다. 삼성은 문창제군(文昌帝君), 관성제군(關聖帝君), 부우제군(孚佑帝君)이다. 삼성의 성격은 각각 대표하는 덕목이 다르다. 문창제군은 '효의(孝義)'이고 관성제군은 '충의(忠義)'이며 부우제군은 '성경(誠敬)'을 대표하는 성격인 것이다. 『삼성보전(三聖寶典)』(1877간본) 「발문」에 “문창제군은 효(孝)의 성인이니 천지가 어찌 그 덕을 찬양하지 않겠는가? 북마제군(관성제군)은 충(忠)의 성인이니 일월이 어찌 그 빛을 양보하지 않겠는가? 부우제군은 성경(誠敬)의 성인이니 귀신이 어찌 그 도를 흠모하지 않겠는가?”라는 내용이 나오고, 『보전』의 핵심 내용이 「문창제군효경(文昌帝君孝經)」, 「관성제군충의경(關聖帝君忠義經)」, 「부우제군성심진경(孚佑帝君醒心眞經)」인 것에서 삼성(三聖)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⁵¹⁾

이것은 삼성을 구분하기 위한 방편이고, 실제 문창제군은 충효의 성격으로 숭배되었다. 『삼성보전』에서 문창제군을 효(孝)의 신으로 규정한 것은 관성제군의 부상(浮上)때문이었다. 삼국시대의 관우를 신성화 한 관성제군은 북송대에 충혜공(忠惠公, 1102), 남송대에 장목의용무안영제왕(壯穆義勇武安英濟王, 1188), 원나라 시대에 현령의용무안영제왕(顯靈義勇武安英濟王, 1328), 명나라 초기에 한수정후(漢壽亭侯, 1370)로 불리다

49) 이진수, 「『태상감응편』의 효사상 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48, 2011, 255~257쪽.

50) 명나라 영락(永樂) 연간에 명나라 황제가 양녕대군에게 『인효황후권선서(仁孝皇后勸善書)』 등을 보냈다고 한다. 『태종실록』, 9년 무자, 고전번역원, “황제가 세자에게 『인효황후권선서(仁孝皇后勸善書)』 1백 50본(本)과 『효자황후전(孝慈皇后傳)』 1백 50본을 주었다.”

51) 김지현, 「조선말기 삼성(三聖) 신앙의 성립과 경전 형성-『과화존신(過化存神)』과 『삼성훈경(三聖訓經)』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도교 언해서 DB 구축 연구” 발표집, 2018.11., 25쪽, “文昌帝君, 孝之聖也, 天地何不讚其德? 伏魔帝君, 忠之聖也, 日月何不讓其光? 孚佑帝君, 誠敬之聖也, 鬼神何不欽其道也?”

가 16세기 말 명나라 만력제 때 ‘협천호국충의대제(協天護國忠義大帝, 1578)’로 추봉된다.⁵²⁾ 비로소 대제(大帝) 반열의 최고 신격이 된 것이다. 이때 부각된 것이 ‘호국충의’이다. 관성제군이 ‘충의’를 대표하는 신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문창제군은 ‘효우’를 대표하는 신격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굳이 구분하면 관성제군은 무관 이미지의 ‘충절’을 강조하고, 문창제군은 문관 이미지의 ‘충효’를 강조하는 신격이라고 하겠다. 조선의 고소 설은 관성제군 부상 후 ‘충효’가 강화된 문창제군의 문관 이미지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성제군과 부우제군은 관우와 여동빈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생애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문창제군은 우주의 별자리에서 출발한 신격이므로 인격화·신격화되는 서사적 과정을 거친다. 처음은 『사기』 「천관서」에서 시작된 것으로, ‘문창성’이 숭문(崇文)과 관료형 군자의 서사적 이미지를 획득하는 단계이다. 다음은 송·원 시기 도교에서 천문신화적 성격의 문창성 서사가 사천지역에서 숭상하던 재동신 서사와 결합하여 문창제군으로 인격화·신격화되는 단계이다.⁵³⁾ 이때 결합한 재동신의 내력이 충절 효행의 서사였다. 그 내용이 조선에서 언해된 『삼성훈경』에도 나온다.

문창제군

제군의 성은 장(張)이요, 이름은 아(亞)이고, 자는 방부(雋夫)이며, 촉(蜀) 땅 채동군(梓潼郡)에서 태어났고, 지극한 효성으로 모친을 위해 주술로 병마를 물리쳤다. 이후 효성으로 성인의 지위에 올라 남궁(南宮)에 거처하며 관성제군과 여조와 더불어 천제의 명을 받아 천하를 개화(開化)하고 오로지 충효를 권장하

52) 蔡東洲·文廷海, 『關羽崇拜研究』, 巴蜀書社, 2001, 325~343쪽; 김일권(2019), 위의 논문, 82쪽에서 재인용.

53) 김지현(2018), 위의 논문; 김일권, 『조선후기 도교 권선서의 삼제군 신격과 명청대 국가의례 전개 고찰 : 19세기 도교언해서 『과회존신』과 『삼성훈경』을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51, 2019,

고 과거(科擧)의 성패와 복록을 주관하며 천계와 인간을 연결하고 백성을 선으로 인도하였다. 어진 덕은 모든 생명에 골고루 미치고 높은 덕은 천계에 배향할 만했다. 17번 세상에 태어나서 97번 교화를 베푸니 신묘한 공적은 모두 『화서(化書)』에 써 있다.⁵⁴⁾

재동신은 사천 재동의 지역신으로, 4세기 장아자(張亞子)의 충절을 기리기 시작한 데서 출발하여 남송 때 '신문성무효덕충인왕(神文聖武孝德忠仁王)'이라 추봉되면서 효덕(孝德)과 충인(忠仁)의 이미지가 강조되었다.⁵⁵⁾ 그러다가 원나라 연우(延祐) 3년(1316)에 '보원개화문창사록굉인제군(輔元開化文昌司祿宏仁帝君)'으로 가호(加號)되면서 충국(忠國)·효가(孝家)·익민(益民)·정직(正直)의 신이 된다.⁵⁶⁾ 이때부터 문창제군이라는 명칭이 널리 쓰이고, '충효'의 신격이라는 서사를 지니게 된 것이다. 문창제군의 영험담을 담은 『화서(化書)』(12세기 후반)의 내용은 고려말 이색과 조선조 이익의 시에서 전고로 사용되고 있는데,⁵⁷⁾ 이는 문창제군의 서사가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향유되었음을 말해준다.

음즐문

문창제군이 말하였다. 내가 17번 세상에 나타나며 사대부의 몸이 되어 백성을 학대하고 아전을 혹독히 다룬 적이 없고 곤경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우며, 외로운 이를 붙잡아 여기고 죄 지은 이를 용서하고 널리

54) 국립중앙도서관본 『삼성훈경』 『삼성사실(三聖事實)』, “文昌帝君 帝君姓張, 諱亞, 字雱夫, 晉太康丁未, 誕于蜀梓潼郡, 性至孝, 爲母呪疽. 後乃以孝證聖位, 居南宮, 與關帝·呂祖, 同受天敕, 開化天下, 惟勉忠孝, 專司科祿, 通天人之交, 而誘民以善, 故仁溥品物, 德峻配帝, 至於一十七世, 九十七化之靈蹟, 具在『化書』”

55) 김일권(2019), 앞의 논문, 85쪽.

56) 卿希泰, 『中國道教史』 3권, 上海 知識出版社, 1994, ‘문창제군’ 조; 김일권, 앞의 논문, 85쪽에서 재인용.

57) 이색, 『목은집』 『목은시고』, <有感自詠>, “却從行蟻體君臣”; 이익, 『성호전집』 6권 <七灘亭十六景 并小序>, “堂堂策策魚來集”

안 보이는 곳에서 선행을 베풀어서 신격이 올라 천계에 도달한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나처럼 마음을 먹으면 하늘이 분명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에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노라. … 복을 넓히고자 하면 심지(心地)에서 시작해야 하니 사람을 돕는 일을 자주 행하고 여러 음공을 지어야한다. 사물과 사람을 이롭게 하며, 선과 복을 닦으며, 하늘을 대신해 정직하게 교화를 실행하고 자상하게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구하며,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며, 형을 공경하고 친구에게 신의 있게 하라. … 고이를 불쌍히 여기고 과부를 위로하며 노인을 공경하고 가난한 사람을 어여삐 여기며, 입을 것·먹을 것을 나누어 길에서 굶고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두루 나눠주고 관곽을 마련해 주검이 길가에 드러나지 않게 하라. 집안이 부유하면 친척을 거느리고 기근이 들면 재산을 풀어 이웃과 친구를 구하라. … 일 할 때는 천리(天理)를 따르며 말할 때는 인심(人心)을 따라라. 언제나 선철과 위인을 본받고 혼자 있을 때를 삼가 이불 속과 그림자가 하는 일을 살피며, 온갖 나쁜 일을 하지 말고 모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면 영원히 불운이 오지 못하고 언제나 행운의 신이 수호할 것이니, 가까이는 그 보답이 자기 몸에 있을 것이고 멀리는 그 보답이 자손들에게 있을 것이며 백 가지 복이 나란히 이르고 천 가지 길상이 구름처럼 모일 터이니 어찌 보이지 않는 선행(음줄) 속에서 얻는 것이 아니겠는가!⁵⁸⁾

위와 같은 문창제군 관련 서시는 『문창제군본전』이나 『문창제군음줄문』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송·원 시대에 형성되어 명·청대에 상당히 유행했다. 성현의 『용제총화』에서 보듯, 문창제군은 재동제군(梓潼帝君)이라는 이름으로 조선 초 왕실 의례에서 제를 받은 신격 중 하나였다.⁵⁹⁾

58) 국립중앙도서관본 『삼성훈경』 「(문창제군) 음줄문」.

59) 성현, 『용제총화』 권2, 고전번역원, “갑인(1494)년 봄에 원자(元子)가 탄생하실 때 내가 현관이 되어 행사를 맡았다. 대개 소격서(昭格署)는 중국 도가(道家)의 행사를 모방하여 태일전(太一殿)에서 칠성(七星)과 제숙(諸宿)을 제사지내는데, 그 상(像)은 모두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 모양이었다. 삼청전(三清殿)에서는 옥황상제(玉皇上帝)·태상노군(太上老君)·보화천존(普化天尊)·재동제군(梓潼帝君) 등 10여 위를 제사지내었는데 모두 남자의 형상이었다.(甲寅春元子誕生, 余爲獻官行此事也

이것은 조선의 상층 구성원에게 문창제군의 서사적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수용되었던 정황을 방증한다.⁶⁰⁾

문운(文運)을 관장하고 충효를 중시하는 문창제군은 조선시대 사대부가 추구하는 이상적 군자상에 어울리면서도 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초월적 서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사대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을 것이다. 사실 유교적 군자에게 신이한 초월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바람은 『맹자』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맹자』 「진심」 상편에는 “夫君子所過者化, 所存者神, 上下與天地同流, 豈曰小補之哉.”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무릇 군자는 지나는 곳마다 교화를 이루고, 머무는 곳마다 신이를 이루니, 상하가 천지와 함께 함께 흐르니, 어찌 기여하는 바가 작다고 하겠는가.”라는 뜻이다. 이것은 군자형 인물을 구성하는 데 도교의 문창제군 서사를 적극 수용한 정황을 이해하게 한다.

<완월회맹연>의 정삼은 유교 사대부 사회의 전형적인 관료형 군자이다. 그는 문연각 대학사이며 초토사 대원수이고 수각로이자 태자태부이다. 부친의 뜻을 따라 동생 정삼의 장자 정인성을 입양하여 종통을 잇고, 모친 서태부인의 뜻에 따라 가내사를 다스린다. 황제가 북쪽 오랑캐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출정하여 황제를 구출하고, 안남 등 남방에서 도적이 일어났을 때는 직접 그들을 진압한다. 도어사의 직분에서는 황족인 경왕을 논핵하는 강직한 신하이며, 가내의 분란을 일으키는 아내 소교완과 아들 정인중에 대해서 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가장이다. 그는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명도 선생의 후손에 걸맞은 모습으로 <완월회맹연>이라는 서사세계의 질서를 주재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경직된 유교 군자보다는 유연하고 초월적 자질을 드러내기도 한다. 충효를 실천하는 방식에서

大抵昭格署皆憑中朝道家之事, 太一殿祀七星諸宿, 其像皆被髮女容也, 三清殿祀玉皇上帝太上老君普化天尊梓潼帝君等十餘位, 皆男子像也.”

60) 이극익의 『연려실기술』 별집 권7 「소격서」 조에서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념적·관념적 균자를 넘어서는 것이다.

상서 정잠이 시랑 정흠의 손을 잡고 시독 정염과 한림 정겸의 팔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수백(정겸)과 은백(정염)은 뜻 잡음과 몸가짐이 완전하여 마침내 위태로운 곳에 나아가지 않을 것이니, 이 형의 마음씀을 어찌 다 이르겠는가마는 만백(정흠)이 너무 격렬하여 돈후함을 잃으니 돌아가신 아버님이 벼슬에 계실 때에도 염려하시어 근신하기를 경계하셨던 것이네. 모름지기 맡은 일을 조심히 하고 각별히 하여 선친이 남긴 가르침을 배반하지 말거라. 내가 벼슬을 버리지 말자 하는 것이 신하의 분의를 다하여 어지러운 때를 따라 사직을 붙들고 임군의 허물을 가리기를 바라서이지 부질없이 언사를 각박하게 하며 분노를 나는 대로 하여 미움을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네. 아우는 은백과 수백을 높은 스승으로 삼아 몸과 명을 모두 보전하시게.”⁶¹⁾

정잠은 종형제, 제종형제인 정흠과 정염 그리고 정겸이 혼암한 황제에게 실망하여 벼슬을 버리고 귀향할 뜻을 밝히자 일단은 황제를 위해 직분에 충실하며 신하의 충성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자 정흠은 “마땅히 도성에 남아서 황제의 실덕을 간언하고 환관 왕진의 양양한 의기를 누르며 직분을 다하겠다.”⁶²⁾라며 목숨을 건 결연한 의지를 다진다. 이에 반해 정염과 정겸은 만약 임금이 간언을 기꺼이 듣지 않는다면 역이거나 비간

61) <완월회맹연> 권4, 2~3쪽, “상세 사랑의 손을 잡고 시독과 한림의 팔을 무마 왈 ‘슈백과 은백은 뜻 잡음과 몸 가디미 완전하여 맞춘니 경위한 곳의 나아가디 아니리니 우형의 형심하를 었디 다 니리리오마는 만백이 너무 격렬하고 초췌하여 성정이 덜악을 여슈하디 기량이 화홍치 못하고 의논이 강항하여 돈후하를 일호니 선군이 남취디 시도도 넘너하사 근신키를 경계하신 비라. 모로미 덕스를 조심하를 각별이 하여 유교를 비판치 말나. 우형이 덕스를 버리디 말고즈 하미 인신분의를 다하여 어지러운 씨를 좃츠 사닥을 붙들고 군상의 허물을 가리오를 바라미오 브절업시 언스를 초췌이 하며 분노를 나는 데로 하여 피이과져 아니하느니 현대는 은백과 슈백으로써 높흔 스승을 삼마 신여명을 갖초 보전하라.”

62) <완월회맹연> 권4, 1쪽, “맛당이 경사의 이서 군상의 실덕을 간하고 왕단의 양양한 의기를 절역하여 덕분을 다하리이다.”

처럼 어리석은 임군에게 충성을 다하다가 부질없이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이고, 미자나 기자처럼 기지를 발휘해 은둔하겠다고 답했다. 이들의 말을 들은 정잠은 경직된 절의관을 지닌 정흠을 걱정한다. 몸과 명을 보존하여 생명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관료형 군자의 유연함이기도 하고, 효를 기반으로 하는 충의 관념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정잠의 선택과 삶은 대체로 이러한 성향을 기반으로 하며 그 결과 100세의 수를 누릴 수 있었다.

정잠의 내력을 형성하는 도교 문창성의 서사적 이미지는 이와 같은 인물 캐릭터 형성과 관련이 있다. 효를 중시하면서도 유연한 관료형 군자로서의 생이 진행된 후, 작품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문창성 관련 전생 이야기가 이제까지 전개되어 온 정잠의 삶에 균열을 만들지 않는다. 이것은 '정잠'이라는 캐릭터가 유교적 가치관을 적극 수용한 도교의 문창성 서사를 다시 유교적 소설 세계 안으로 받아들여 만든 융합형 군자이기 때문이다. 유교와 도교의 경계에서 만들어진 사상 융합형 군자로서의 정잠은 허황되고 비현실적인 인물이라기보다 도덕적으로 진지하고 우월한 가장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를 통해 발견되는 유·도 융합적 군자형 인물에는 사대부의 비상한 자부심을 강조하고자 하는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5. 마치며

한국 고소설의 대표 화소 중 하나가 '천문화소(天文話素)'이다. 천문화소란 일월성신(日月星辰)의 천체 관련 화소를 말한다. 특히 별자리와 관련한 화소가 발달했는데, 기존연구에 따르면 현존하는 고소설에 수용된 별자리 화소는 대략 43개라고 한다. 여기에는 경성·견우성·계명성·규

성·기성·남극노인성·남두성·노군성·도화성·동두성·두성·두우성·무창성·문곡성·문일성·문창성·별·보필성·복성·복두성·복두칠성·삼태성·소성·수성·심성·은하수·이십팔수·일식·자미성·장경성·재성·직녀성·천랑성·천문·천요성·천일성·침성·청녕성·취미성·태백성·태을성·태음성·홍난성이 포함된다.⁶³⁾

천문화소는 ‘천문에 대한 이야기’ 혹은 ‘이야기 속에 동원되는 천문 이미지’로서, 오래 전부터 정치적·역사적 사건이나 주장에 대해 특별한 서사적 맥락을 제공해 왔다. 기원전 5-6세기 경 공자가 ‘덕정(德政)’을 북신(北辰)과 중성(衆星)의 관계에 비유한 것이⁶⁴⁾ 대표적 사례이다. 천문화소가 본격화되는 것은 기원전 1-2세기 경이다. 사마천은 『사기』에 『천관서(天官書)』 편을 별도로 두어 천문 관련 정보와 전승을 결합하여, 천문의 서사적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였다. 예를 들면 태일 뒤에 있는 네 별을 정비(正妃)와 후궁(後宮)들의 관계로 설명하거나, 삼태성의 색이 화평하면 군주와 신하가 화목함을 나타낸다고 말하는 것 등이다.⁶⁵⁾

천문화소의 서사적 이미지는 고소설에서도 적극 수용했는데, ‘견우성과 직녀성’은 <소현성록>·<취유부벽정기>·<화용도>·<심청전>·<춘향전> 등에서 남녀 간 사랑과 이별·남성 주인공의 사후 귀의처·아름다운 여성 인물의 전신을 나타냈다.⁶⁶⁾ 또한 ‘남두성과 견우성’을 합칭한 ‘두우성’은 <소현성록>·<강태공전>·<유씨삼대록>·<심청전>에서 남

63) 김일권·김수연, 『우리 별자리 설화 사전-고전문학류편』, 2013년도 한국학심화연구 과제 연구결과물,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28쪽. 이 연구는 조희용, 『고전소설 줄거리 집성』 1·2, 집문당, 2002; 김동욱 편, 『고소설 판각본 전집』 1-5, 영인본; 조혜란 외, 『소현성록』 외 이화한국문화연구원총서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소명출판, 2010; 박희병 교감, 『한국한문소설교합구해』, 소명, 2005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64) 공자, 『논어』 『위정』, “子曰: 爲政以德, 譬如北辰, 居其所而衆星共之.”

65) 사마천, 김원중 역, 『사기 서』, 민음사, 2011, 161~163쪽.

66) 김일권·김수연(2013), 앞의 논문, 37~50쪽.

성 인물의 비범한 기상이나 과격한 기운·사건 전환을 모색하는 계기 및 계약의 근거·남녀 결연의 계기로 사용되었다.⁶⁷⁾ '규성'은 <숙향전>·<심청전>·<용문전>·<소현성록>·<임씨삼대록>에서 여성인물의 전생·지상의 상황을 옥황상제에게 아뢰는 천관(天官)·악인을 처단하는 근거로서의 하늘을 대표하는 존재·남녀의 천정연분을 확인해주는 존재로 나온다.⁶⁸⁾

고소설의 천문화소 수용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양한 별자리 화소의 전반적 특징을 검토하고 삼태성(三台星)·문창성(文昌星)·태을성(太乙星)을 중심으로 남성인물과의 관련 양상과 의미를 논의했고⁶⁹⁾ '두우성(斗牛星)'과 '태을성'의 서사적 수용을 분석한 바 있다.⁷⁰⁾ 이들은 3세기 장화의 고사에서 두우성의 서사적 이미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피고, 고소설에 수용된 양상을 검토한 후 두우성 즉 남두육성과 견우성에 대한 역사천문학적 고증을 포함한 서사적 의미를 고찰하기도 하고, '태을-태일' 별자리와 이미지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고소설의 수용 양상 및 의미를 논하기도 했다.⁷¹⁾ 이상의 연구들은 고소설에 수용된 천문화소가 주로 인물과 조응하며, 인물의 성격을 형상화하는 데 기여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선행 연구가 본 연구의 주요한 디딤돌이 되었다.

67) 김수연, 「별자리 천문화소 두우성의 서사적 수용 양상과 해석의 문제」, 『시학과 언어학』 27, 시학과언어학회, 2014, 53~72쪽; 김일권·김수연(2013), 위의 논문, 50~60쪽.

68) 김일권·김수연, 위의 논문, 60~66쪽.

69) 한길연, 「고전소설의 별자리 화소 연구」, 『고전문학연구』 16, 2014, 217~237쪽. 그는 삼태성이 정인군자에, 문창성이 문과 합격자에 상응하고, 태을성이 이상적 남성과 문제적 남성상을 나타낸다고 했다. 애정소설에서는 이상적 인물, 대하소설에서는 문제적 인물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양상은 확장된 시공간을 일상에서 향유하고, 천상마저 현실 논리에 복속시키려 했던 당대인의 의식을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70) 김수연(2014), 앞의 논문, 55~72쪽; 「고소설 천문화소 '太乙'의 서사적 수용 양상과 의미」, 『열상고전연구』 44, 열상고전연구회, 2015, 173~201쪽.

71) 김수연(2014), 앞의 논문, 55~72쪽; 「고소설 천문화소 '太乙'의 서사적 수용 양상과 의미」, 『열상고전연구』 44, 열상고전연구회, 2015, 173~201쪽.

천문화소를 통한 인물 형상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조선후기에 유행한 국문 장편소설의 ‘군자형 인물’이다. 군자형 인물은 다수 국문 장편소설의 핵심캐릭터이기 때문이다. 국문 장편소설은 별칭이 ‘가문소설’인데서 알 수 있듯, 대개가 유교사상을 중심 세계관으로 삼는 작품군이다. 영웅소설이나 애정소설의 남성인물과 달리, 가문소설의 군자는 유교적 가치를 엄격하게 구현하는 인물로 평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을 형상화할 때도 유교적 합리성이 강조될 것이라 기대된다. 그런데 다수의 국문 장편소설이 군자형 인물의 형상화 과정에 천문화소를 적극 활용한다. 대표적인 것이 ‘주성(主星)’이다. ‘주성’은 도교적 우주관을 반영한 상상력이지만 유교적 천문관에도 전거가 있고, 그 활용도 대체로 인물이 처한 위기상황을 나타내는 차원에서 동원될 뿐이기 때문에 유교적 사유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천문화소가 확대된 서사적 맥락을 지니고 인물의 형상화에 참여하는 것은 천상의 전생이 등장하는 경우이다. <숙향전>의 이선이 천상에서 태을선이었다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럴 경우는 ‘주성’과 달리 도교적 사유가 부각된다. <숙향전>이 민간의 상상력을 존중하는 대중적 영웅소설이고 사상적으로는 도교소설로 분류되며 무엇보다 이선이 군자형 인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의 전생을 ‘태을선’을 설정하는 이야기는 그다지 어색하지 않다. 그러나 가문의식을 강조하는 작품에서 핵심이 되는 군자형 인물의 전생을 천상 성신(星辰)으로 설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것은 유교적 서사세계가 도교적 서사세계를 매우 비중 있고 의미 있게 포섭하는 작업으로, 가문소설의 주요 향유층인 사족(士族)의 세계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소현성록>의 소현성을 비롯한 다수의 군자형 인물은 존재의 사상기반과 생활의 철학기반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의 독자들은 이것이 불편하거나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대부가 구성원들은 장편소설을

일종의 '교회서'로 여기고, 독서를 권장했으며 직접 창작에도 나서기도 했다.⁷²⁾ 당시에 '붐(boom)'이라고 할 정도로 성행했던 장편소설의 창작과 독서는 작품의 주인공 격인 군자형 인물에 대한 적극적 환영과 애호를 반영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문창제군 서사에서 보듯, 유교와 도교라는 서로 다른 사상이 충효라는 관념을 중심으로 '관료형 군자'로 조화롭게 수렴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군자형 인물 전반을 대상으로 하지 못했다. 필자는 고소설의 군자형 인물을 포괄하며 유교와 도교의 교섭 과정에서 나타나는 서사적 쟁론을 다루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이 글은 그러한 심화 단계로 나아가는 시론이다. 문창성과 문창제군을 중심으로 도교의 핵심 이미지와 신격이 고소설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 배경을 살폈다는 데 의미를 두고, 미진한 부분은 후속 작업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72) 임형택, 『17世紀 閩房小説의 成立과 <倡善感義錄>』, 『동방학지』 57,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8, 127~160쪽.

참고문헌

<소현성록>, 필사본

<옥루몽>, 활자본

<완월회맹연>, 필사본

<유씨삼대록>, 필사본

『논어』, 영인본

『맹자』, 영인본

『목은집』, 고전번역원

『史記』, 영인본

『삼성훈경』, 국립중앙도서관

『성호사설』, 고전번역원

『성호전집』, 고전번역원

『송자대전』, 고전번역원

『연려실기술』, 고전번역원

『용재총화』, 고전번역원

『태종실록』, 고전번역원

『효종실록』, 고전번역원

김세한, 「송대 신유학과 퇴계의 철학사상」, 『퇴계학』 2, 안동대학교, 1990, 176~184쪽.

김수연, 「‘형제급난’의 서사적 전변과 우애의 신화화-한국사회의 ‘형제서사’ 진단과 치유적 전개 방향-」, 『문학치료연구』 54, 한국문학치료학회, 2020, 9~57쪽.

김수연, 「<완월회맹연>의 종교 사상 : 도덕적 가문 절대주의로 수렴되는 유불도」, 『달밤의 약속, 완월회맹연 읽기』, 책과함께, 2019, 247~279쪽.

김수연, 「고소설 천문화소 ‘太乙’의 서사적 수용 양상과 의미」, 『열상고전연구』 44, 열상고전연구회, 2015, 173~201쪽.

김수연, 「별자리 천문화소 두우성의 서사적 수용 양상과 해석의 문제」, 『시학과 언어학』 27, 시학과언어학회, 2014, 53~75쪽.

김수연, 「소통과 치유를 꿈꾸는 상상력, <숙향전>」, 『한국고전연구』 2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429~459쪽.

- 김일권, 『조선후기 도교 권선서의 삼제군 신격과 명청대 국가의례 전개 고찰 : 19세기 도교언해서 『과화존신』과 『삼성훈경』을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51, 한국도교문화학회, 2019, 65~108쪽.
- 김일권, 『동양천문사상 하늘의 역사』, 예문서원, 2007, 5~538쪽.
- 김일권·김수연, 『우리 별자리 설화 사전-고전문학류편』, 2013년도 한국학심화연구과제 연구결과물,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1~430쪽.
- 김지현, 『조선말기 삼성(三聖) 신앙의 성립과 경전 형성-『과화존신(過化存神)』과 『삼성훈경(三聖訓經)』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도교 언해서 DB 구축 연구” 발표집, 2018.11., 1~28쪽.
- 김훈식, 『16세기 <二倫行實圖> 보급의 사회사적 고찰』, 『역사학보』 107, 역사학회, 1985, 15~68쪽.
- 李澤厚, 윤수영 역, 『미의 역정』, 동문선, 1991, 2~510쪽.
- 린경, 김수연 역, 『서유기-강호에서 동심으로』, 학고방, 2019, 5~323쪽.
- 牟鍾鑒, 이봉호 역, 『중국도교사-신선을 꿈꾼 사람들의 이야기』, 예문서원, 2015, 4~347쪽.
- 박일용, 『<유효공선행록>의 형상화 방식과 작가의식 재론』, 『관악어문연구』 20, 서울대 국문과, 1995, 151~176쪽.
- 사마천, 김원중 역, 『사기 서』, 민음사, 2011. 5~392쪽.
- 성교진, 『조선성리학사 서설』(1), 『현대사상연구』 2,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현대사상연구소, 1991, 55~86쪽.
- 윤찬원 역주, 『태평경 역주』 1, 세창출판사, 2012, 1~445쪽.
- 이지영, 『규범적 인간의 은밀한 욕망』,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123~152쪽.
- 이태희, 『조선후기 선서의 수용과 유행의 요인-『증정경신록』과 『경신록언석』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69, 국제어문학회, 2016, 99~126쪽.
- 정선희, 『영유호걸형 가장의 시원-<소현성록>의 소운성』,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153~186쪽.
- 정재서, 『동아시아 상상력과 민족서사』, 이화여대출판부, 2014, 5~347쪽.
- 조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효제’ 수행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유연과 정소저 부부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39, 한국고소설학회, 2015, 141~175쪽.
- 조혜란, 『고전소설에 나타난 군자형 인물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연구』 33, 한국

고전연구학회, 2016, 147~178쪽.

조혜란, 「소현성과 유교적 삶의 진정성」, 『고소설연구』 36, 한국고소설학회, 2013, 167~200쪽.

최윤희, 「〈유효공선행록〉이 보이는 유연 형상화의 두 양상」, 『한국문학논총』 41, 한국문학회, 2005, 189~209쪽.

한길연, 「고전소설의 별자리 화소 연구」, 『고전문학연구』 16, 2014, 213~241쪽.

한상봉 편저, 『역주 태상감응편』, 다운샘, 2002, 7~570쪽.

ABSTRACT

Acceptance of 'Munchangseong' into the classic novel
and A good-man character with a fusion of ideas
on the border between Confucianism and Taoism
— Focusing on Cheongjam in <Wanwolhoemaengyeon(玩月會盟宴)>

Kim, Soo-young*

This article examines the ideological and narrative origins that make up the characters of Korean long novels. Specifically, with the focus on the family novel series, <Wanwolhoemaengyeon(玩月會盟宴)>, we discussed the process of forming the central figure as a fusion of Confucianism and Taoism by focusing on the aspect of acceptance and the narrative origin. <Wanwolhoemaengyeon> uses the descendants of Cheong Myung-do, who was the initiator of New Confucianism, as the main family. The main character, the male protagonist, is basically a Confucian military figure. Among them, in the case of Cheongjam, which leads the narrative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he work, it not only highlights the Taoist image of "Shin Seon(神仙)" in the first appearance, but in the second half, it introduces the past life history, which was the official in the heavens. It is a historical figure, descended from Cheong Myeong-do, and cosmologically set as the successor of Mun Chang-sung.

Munchangseong has a narrative that begins with the image of the heavenly celestial body and transforms into a deity called Munchang empire. Munchangseong is the representative deity of Taoism, and is widely accepted by the upper classes of Joseon society, as well as by Ming and Qing. In addition to the image of Sungmun(崇文, Admiring academics), he confirmed the idea of "Chunghyo(loyalty and filial piety)" based on "Hyo(filial piety)", which was emphasized by the Joseon Dynasty. 'Chunghyo' in the narrative of the Jaedong empire, which is

* Ewha Womans Univ.

embraced in the process of personalization and deification of Munchangseong, is emphasized. This can be confirmed in the Taoist scriptures containing the narrative of the Changchang empire. The acceptance of Mun Chang-sung's story elements can be said to be a task in which the high-novel Confucian narrative world embraces the Taoist narrative world with great importance. In addition, the Gunja(good man)-type figure is an ideological fusion-type man who made a narration of Confucian values and Taoist imagination, which seems to reflect the desires of the peoples who wished for a transcendental position on moral superiority.

Key Words <Wanwolhoemaengyeon(玩月會盟宴)>, MunChang-sung, Gunja(good man)-type figure, Taoist imagination, Confucian values, Fusion-type good man

논문투고일 : 2020.04.22

심사완료일 : 2020.05.13

게재확정일 : 2020.05.17